

## 02

한우도 잘 살고  
장수도 잘 산다**장수군 신활력지원사업 :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클러스터 구축**

현재 장수군은 인구가 2만 3천명에 소는 2만 8천두다. 사람보다 소가 많다. 장수는 1979년 한우계통번식지구로 선정된 이후 한우와의 본격적인 동고동락을 시작했다. 사람과 동물이 가장 포근함을 느낀다는 해발 650m의 고지대이자 금강과 섬진강의 물줄기를 대고 있는 천연청정지역 장수야말로 건강하고 품질좋은 한우생산지로 제격이었다. 장수한우는 지방량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며 육색이 뛰어나 최고품질의 한우로 인정받고 있다. 2010년 제1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종합우승 대통령상에 빛나는 한우가 바로 장수한우다. 국내 한우브랜드가 200개 이상 난립하는 가운데 획득한 최고라는 평가! 아무리 한우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라지만 단순히 천연환경의 힘만으로 이뤄낸 결과는 아니리라.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한우의 브랜드파워 구축이야기를 들어보자.

## 소 키우는 군수님은 축산베테랑



‘축산붕괴는 장수의 붕괴다’. 장수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애기다.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여타 농업생산소득을 내고 있지만 전체 농업소득의 46%가 축산소득이다. 소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군민들 대부분이 바라는 오늘의 소망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 하지만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관광객의 발길은 뜸해지고 사업체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장수의 현실이었다. 2005년 신활력지원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장수군도 위기를 극복해 낼 최적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군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면서도 충분한 경제적 소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다. 단순히 소 몇 마리 키우고 전답 몇 마지기 가지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5·3프로젝트다. 연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3천호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화 산업에 군민들이 합심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다. 답은 한우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축협에 몸을 담았던 장재영 군수는 ‘돈되는 농업, 돈되는 축산’을 강조했다. 본인이 직접 20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축산전문가로 소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테랑이다. 장 군수가 키우는 소는 전라북도 한우등급판정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다. 직접 키운 소는 향후 농가들을 위한 테스트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한우가 최고의 한우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장 군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앞날의 내다보며 지자체장 스스로가 든든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기에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구축 사업은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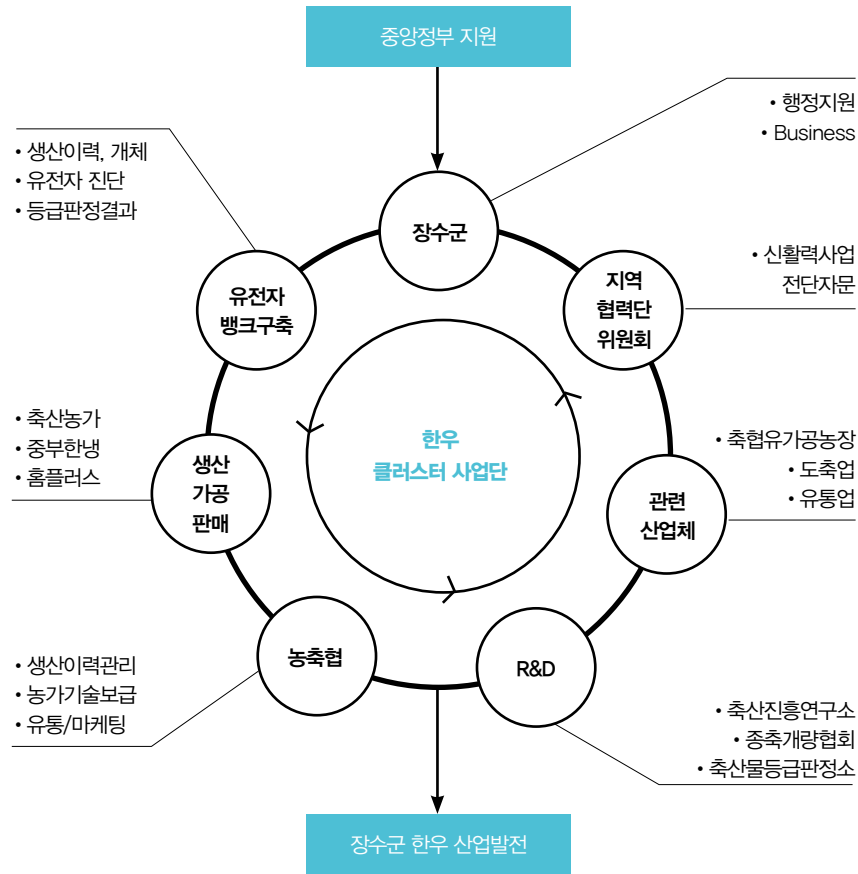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반구축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구축 사업은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은 기반구축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도약기, 그리고 완성기를 2013부터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시작은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출범이다. 2005년 정부의 신활력 지원사업은 민간사업단 출범의 물꼬를 튼해주었고 지역혁신협의회, 한우협회, 무진장축협 등의 연계 협력으로 첫 발을 내딜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업단 기반구축의 핵심은 유전자뱅크의 설립이었다. 장기적인 우수 한우의 보급과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었다. 유전자뱅크는 기본적으로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의 수정란을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정란 이식 및 성 분리에 의한 계획생산으로 한우개량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장수한우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우연구 활성화를 통한 축산관련 우수인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축산산업의 첨단생명공학산업으로서의 인식제고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유전자뱅크는 친환경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자연형 시범축사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장수한우 등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이력관리 일지가 전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수한우 전 두수에 구충 사업 및 브루셀라 채혈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농가에서 채토한 시료를 분석처방하여 맞춤형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가 확립되었고 토양분석을 통한 토양지도도 완성되었다. 장수한우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고 장수한우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계획도 수립되었으며 장수한우 직영점 설립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산이력 관리 체계와 맞춤형비 생산체계, 유통마케팅 체계 또한 기반구축 단계에서 확실한 틀을 확립했다.

| 신활력지원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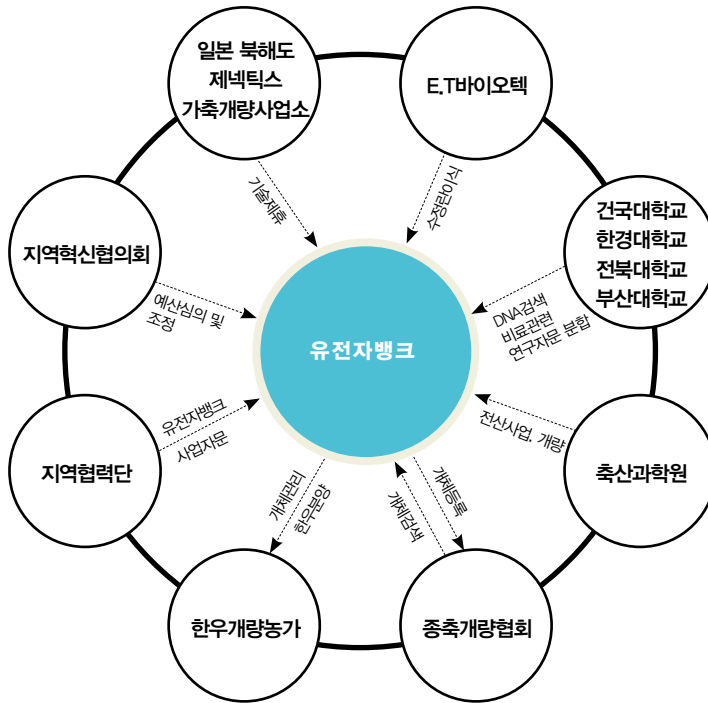


|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군비	민간 자부담	합계
	광특회계	인센티브	소계			
총사업비	17,400	3,295	20,695	4,931	4,482	30,108
2010년 사업비	2,900	—	2,900	1,671	852	5,423

## | 유전자뱅크 사업추진 체계도 |



## 농가민심을 달래줬던 막걸리 한 사발

유전자뱅크의 설립의 확정되고 시범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통 정부지원금이 오면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상식이었던 만큼, 축산농가에만 유리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는 의견도 많았다. 더구나 축사가 들어서면 뒤따르게 되는 축분과 악취를



유전자뱅크 시범축사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업단은 팔을 걷어붙이고 설득작업에 나서야 했다.

‘축산이 장수군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축분이 있어야 다른 경종농가들도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장기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한우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장수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체다’ 등, 사업단은 떠를 두르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진심어린 대화를 시도했다. 사업단장부터 여직원까지 사업단 전 직원이 함께 설득작업을 벌였다. 결국 막걸리 한 사발씩을 건네며 전한 사업단의 진심어린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닫혀있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사업단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까지 전해주었다. 장수군의 발전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 축산백년지대계는 순환농업이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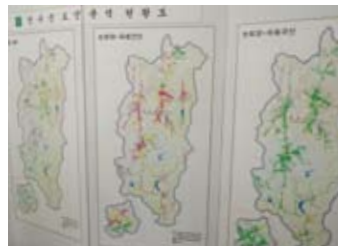
장수군에 축산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다른 경종농가들의 반대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장수사과, 장수토마토, 장수오미자 등도 다른 여타 지역에 견주어도 그 품질과 상품성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일의 경우 주기적으로 토양에 따라 품질 차이가 심해진다. 기후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퇴비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양질의 퇴비, 바로 축분이다. 축분은 섬유품질이 풍부해 다른 가축분에 비해 양질의 퇴비로 적합하다. 화학비료가 아닌 순수 자연에서 얻은 비료로 키워진 농축산물, 그 농축산물 중 일부는 인간에게 가고 일부는 다시 농축산물의 퇴비로 가는 시스템! 자연순환농업의 원리다.

장수군은 “축분은 자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장재영 군수(장 군수 앞에

서는 ‘소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한다. ‘소똥’도 엄연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꼭 ‘축분’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의 주도아래 화학비료가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순환농업을 표방하고 있다. 순환농업체계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경종농가들까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수군 내에서 순환농업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우 50,000두가 필요하다. 소가 하루에 축분을 14.5kg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1년간 비료로 만들면 4톤이 된다. 1년간 20만톤의 비료가 장수군 내의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양이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체계가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의 유전자뱅크와 TMR 사료공장이다. 단순히 비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적합한 비료를 제공하기 위해 토양지도를 만들어 맞춤 처방을 하는 시스템 또한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TMR 사료공장



토양지도

## 한우핵심리더들, 고생도 1등급

멀리 내다보는 장수군의 축산백년지대계는 지속적인 한우핵심리더 전문인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사업단은 2008년부터 장수 한우 전문 농민대학, 장수 한우연구회, 한우농가 부인회 교육 등을 운영하는가 하면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농학사 24명을 졸업시키고 현재 57명의 재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후원과 교육이 이루어져도 젊은이들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일은 쉽지 않았다. 더구나 한우 구충작업과 브루셀라 채혈작업을 하는 중에 소에게 차이거나 찢혀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실제로 작년에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 밑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직원도 있었다.

이렇게 고생도 1등급으로 해야 하는 일을 젊은이들이 술선수범으로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급여도 많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민간조직이라는 점도 큰 매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인공수정사, 가족계량방역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을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간 경우도 있었다.

인력유지는 사업단의 성영수 단장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본인 또한 높은 연봉을 받던 공직을 버리고 민간사업단의 일시사역 업무로 자리로 옮길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성영수 단장에게는 젊은 전문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성 단장은 도약의 발판이 된 인제는 차후에 꼭 중심인물이 되기 마련이라는 점, 장수한우와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탄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사업단은 지방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등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다독였다. 한편 농가들은 젊은이들이 한우와의 혈투(?)를 벌이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단의 고충을 이해해주기도 했다.

용인 흥덕지구 한우프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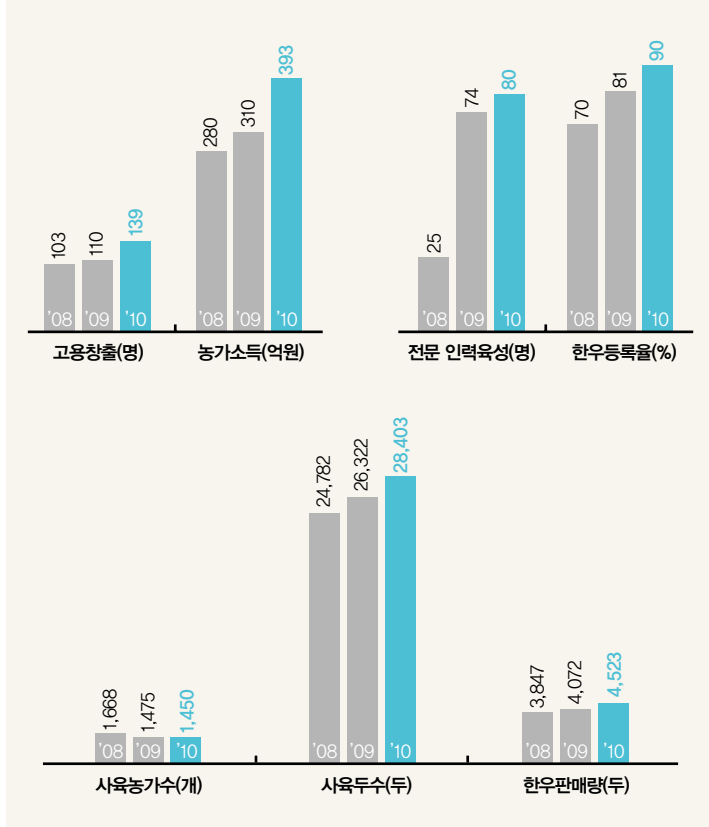


## 장수한우의 고집 있는 도약과 성장

도약기에 접어든 사업단은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TMR사료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지리적표시제 인증과 DNA 검사를 통한 고급육 생산지표를 설정했다. 또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노력으로 장수한우 무항생제 인증 125농가, HACCP 인증 30농가를 확보했다. 전 두수 브루셀라 채혈 및 구충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안전축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별 공동 방역단을 조직하여 자율 방역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할 당시에도 장수군은 구제역 안전지대로 인정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장수군은 차별화된 방역체계

## | 사업성과 및 산업·경제적 효과 |



를 갖추고 있었다. 먼저 1차 방역은 농가, 2차는 마을단위, 그 다음이 행정단위 공동방역이다. 농가와 마을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마을단위 방제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구제역이 오히려 축산농가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계기가 되었고 사육두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장수한우는 친환경 축산과 자율방역으로 믿을 수 있는 한우 생산의 전형을 보여주는가 하면 고집 있는 유통마케팅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장수는 대단위 한우단지도 없고 기능성 고기도 만들지 않는다. 한우전문식당 7개와 지난해 용인 흥덕지구에 생긴 한우프라자를 통해 고급육만을 파는 고집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프라자는 5호점까지 계획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농가소득 상승은 물론 고용창출, 축제방문객 수 증가, 사육두수 증가, 한우판매량 증가, 1등급이상 비율 증가 등 전 부문에 걸쳐 장수한우의 급성장이 이루어졌다. 사육농가수가 매년 줄어든 것은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죽이 잘 맞는 민·관 협력체계

장수한우는 이제 장수군의 핵심소득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고급 한우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지역협력 및 확산이 빨랐다는 점, 산학연 협력체계가 긴밀하였다는 점, 순환농업 체계 방식으로 자원·물질·소득의 순환체계를 이어간 점, 한우거점 시설(유전자뱅크, TMR 사료공장, 장수한우프라자 등)의 수익성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영 군수 이하 담당 공무원들과 21명의 클러스터 사업단, 연구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학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장수군내 축산농가들 모두 장수한우의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들이다. 이제는 많은 지자체에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사업단에 방문을 원하고 있다. 한우연구회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방문이 이어졌다. 견학요구가 많아지자 방역문제로 인해 자제요청을 하기도 했을 정도다.

사업단의 성영수 단장은 방문을 원하는 단체에 꼭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2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할 것. 둘째 장수한우로 식사를 해야 할 것. 겉으로 보기에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만만한 사업



성영수 사업단장과 차주연 축산과장

이 아님을 성 단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이끈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축산농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성영수 단장은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함께 해 준 직원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어린시절부터 함께 해온 장수군 차주연 축산과장은 성 단장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였다. 두 사람의 우정은 사업의 고비 고비마다 해결점을 찾아주는 멋진 파트너십으로 나타났다. 성영수 단장이 일을 제시하고 저지르는 쪽이라면 차주연 과장은 행정적인 전략과 방법을 마련하는 쪽이었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현재의 멋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세계 최고의 농업 · 건강 도시를 꿈꾸며

6년간에 걸친 사업성가로 탄력을 받은 장수군은 신활력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우산업을 강화하여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투명하고 효과적인 손익관리를 위해 2010년도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를 제정 · 운영하고 있으며, 12개년 중장기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현재 사업단을 ‘장수지방공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찌보면 장수군은 한 우물을 판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빙산의 일각처럼 성과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차근차근 마련한 순환농업체계를 핵심성장동력으로 한우브랜드를 활용한 융합산업 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 6차산업 창출로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어느새 큰 산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장수군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